

#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 대인관계,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김경화  
단국대학교

##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ctive Art Treatment based on Reminiscence Therapy on the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Subjective Sense of Happiness among the Elderly with Dementia

Gyoung-Hwa Kim

Dank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 대인관계,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S군에 소재하는 S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중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의 치매노인 총 3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7일 부터 2021년 1월 2일 까지 주1회씩 12회를 걸쳐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뢰도 검증, 교차분석, 독립표본 T-test, 3×2 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를 치매노인의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둘째,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를 치매노인의 대인관계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셋째,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를 치매노인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회상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며,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로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회상요법, 집단미술치료, 치매노인, 우울, 대인관계, 주관적 행복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reminiscence-based collective art therapy on the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subjective sense of happiness among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study was conducted on 30 volunteers with dementia aged 65 or older attending the S Weekly Care Center located in S-gun as subjects during the period between November 7, 2020 and January 2, 2021 with one session week for a total of 12 sessions. The SPSS 24.0 statistics program has been used for various data analyses, including confidence verification, cross tabulat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3×2 multi-variant analysis.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llective art therapy based on reminiscence therapy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with dementia. Second, the collective art therapy based on reminiscence therapy is effective in promo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the elderly with dementia. Third, the collective art therapy based on reminiscence therapy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subjective sense of happiness among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refore, the reminiscence-based collective art therapy is found to serve as an effective means to relieve depression,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o promote a subjective sense of happiness among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Key Words** reminiscence therapy, collective art therapy,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ubjective sense of happiness

Received 11 Oct 2021, Revised 19 Oct 2021

Accepted 26 Oct 2021

Corresponding Author: Gyoung-Wha Kim  
(Dankook University)

Email: kghwa40@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우리나라는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구의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의 인구도 빠르게 상승되어 202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12만5천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2025년에는 20.3%이며, 2060년에는 43.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통계청, 2020)[1], 이러한 평균수명과 노인인구비율 증가와 함께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치매유병률도 계속 상승하여 환자수는 2019년 약 79만명이고, 2030년에는 136만명, 2040년에 220만명, 2050년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20)[2].

치매는 정상적으로 성숙했던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의 원인에 인하여 기질적으로 손상 또는 파괴되어 의식의 장애 없이 전반적으로 인지기능이 감퇴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이다(오병훈, 1994)[3]. 치매는 기질적인 정신기능장애로 의식의 장애 없이 지남력 장애, 기억력 장애, 주의력 장애와 언어장애, 추상적 사고장애, 시공간기능 장애, 수행능력 장애와 같은 인지기능의 장애를 보인다. 또한 정동장애, 지적능력 감소, 망상, 환각과 같은 정서장애와 반복적이고 공격적인 과다행동과 같은 행동장애를 나타내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며, 치매증세가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다(김치영, 2006)[4]

치매는 특성상 명확한 병인이 밝혀지지 않아 노인성 치매의 경우에는 병의 진행 속도가 느려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 치료효과를 기대해야 되는 실정이다(오병훈, 1994)[5]. 치매노인들의 치료는 크게 의학적 치료와 심리적 치료로 분류될 수 있는데 약물치료만이 완전한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치매 노인을 위한 심리적 치료의 중요성과 다각도의 공동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여러방면의 심리적인 치료법을 광범위하게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심리치료 중 미술치료는 미술에 대한 전문적 능력이나 재능과는 상관없이 비언어적,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치매노인들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심리 사회적 갈등 및 병에 관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정여주, 2006)[6]. 또한 창조적인 자기표현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적, 심리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엄윤숙, 2007)[7].

특히, 집단미술치료는 미술 활동으로 인해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고, 작업 결과물을 보고 관찰할 수 있어서 성취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집단 활동을 통한 정서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게 되어 고독감, 우울감에서 벗어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준다(최외선, 2005)[8]. 김영숙, 도복늬(2005)는 집단미술치료는 잔존하고 있는 기억력을 유도하고, 그림을 통한 대화로 언어력을 유지시키며, 표현활동을 통해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9]. 이정영(2002)은 집단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한 사회적 상황을 형성시키며 각 집단구성원들은 작업활동을 통한 자신의 창조성이 증가되고, 집단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치매노인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10]. 엄인하(2019)는 집단 활동을 통한 미술치료는 자신을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치매노인들이 친밀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증가되었고, 다른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 격려를 보이는 등 원만하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증진되었다[11]. 진성희(2009)는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들의 집단 상호간의 적응력을 개선시켜서 대인관계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12].

우리나라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회상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는 1990년대 부터 시작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치매의 증상 중에서 인지기능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안수영, 2021)[13]를 비롯하여 우울(이주영, 임나영, 2016)[14], 자기표현능력(조선남, 2017)[15], 삶의 질(오영이, 이숙민, 2016)[16]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회상은 인간이 지나간 사건이나 경험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이은정, 1999)[17]. 회상요법은 노인들이 경험한 과거 사건들 중 유쾌한 경험을 기억해내어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통해 그러한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적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치료법이다. 이러한 회상요법을 통해

서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을 도와주며, 우울을 감소시키고, 상호작용의 증진을 통해서 노인들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며 자아개념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Fry, 1983)[18].

회상을 통한 집단미술치료는 친숙한 매체 및 주체를 활용하여 긍정적 회상을 증가시키며 구성원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받으며 정서적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공혜숙, 2012)[19].

Gallagher(1993)는 회상요법을 미술치료에 적용하여 미술치료를 통한 회상 과정이 치매노인의 긍정적인 삶의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20]. 오영이, 이숙민(2016)는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16]. 서운옥(2009)은 회상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에게 자기 표현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고, 회상을 통한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과 경험들을 자극해서 흥미를 유발시키며, 집단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기억을 되살리고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상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치매노인들에게 활용하여 그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 증진 및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 대인관계,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 대인관계,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2020년 11월 7일 부터 2021년 1월 2일 까지 주1 회씩 12회를 걸쳐 진행되었고, S군에 소재한 S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중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신경과전문의로부터 치매 진단 받은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3단계 이상 지시 수행이 가능한 자 (4) 본 연구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 2.2 측정도구

### 2.2.1 우울

우울 측정도구는 Zung(1974)이 개발한 우울측정 도구 20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22]. 본 도구는 4점 척도로 하였으며, ‘거의 없다(1점)’에서 ‘매우 많다(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0.640으로서 적정 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 2.2.2 대인관계

대인관계 측정도구는 Schlein 과 Guernsey(1971)가 개발한 척도를 문선모(1980)가 번안해서 사용하였다[23]. 대인관계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방식은 5점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0.908로서 적정 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 2.2.3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도구는 Lyubonirsky와 Lepper(1999)가 고안하고 선행연구(임지숙, 2004; 장휘숙, 2009) 등이 사용한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주관적 행복감을 의미한다[24,25].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0.876으로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2020년 11월 7일 부터 2021년 1월 2일 까지 주1회씩 12회로 진행하였다. 사전검사는

프로그램 시작 일주일 전에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종결 후 실시하였고, 추후검사는 프로그램 종료시점 2개월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척도와 방법으로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였다.

집단미술치료의 각 회기는 도입 활동, 본 활동, 작품 감상 및 마음나누기, 마무리 등 4단계로 구성하였다. 도입 활동 단계는 인사하기, 1주 동안 재밌고, 즐거웠던 일 이야기 나누기, 간단한 신체활동 몸 풀기 및 노래부르기, 주제에 관한 소개로 5~10분, 본 활동 단계는 오늘의 주제에 관한 안내, 본 활동에 대한 기대감 높이기, 작품 만들기 45~50분, 나누기 단계는 타인의 작품을 감상하기,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작품에 대한 느낌 나누기로 15~20분, 마무리 단계는 집단원 전체에 대한 진행자의 긍정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하기, 미술작업을 하면서 느낀 감정을 공유하기, 정리정돈 후 인사하기로 5~10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시간은 70분~90분 내에서 다소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llective Art Treatment based on Reminiscence Therapy

Session	Theme	Description	Purpose	Materials
1	Who are you?	Introduce yourself by making your business card	Building intimacy, inducing interest	Sketchbooks, colored Pencils
2	Where is your hometown?	Describe your hometown, including the village name	Emotional stability, pleasure, relieving depression,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ole papers, HTP designs, colored Pencils, paints, glues, scissors
3	My newlywed story	Decorate a bride and groom with a reminiscence of the first night of marriage, and bring back the memory of that night	self-esteem improvement, self-integration, psychological support	sketchbooks, Hanbok designs for men and women, colored pencils, scissors, glues
4	Having companion fish	Decorate fish designs, aquarium designs, cut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orientation,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orientation,

		out fish and attach them to the aquarium, and talk about family related with fish,	and self-expression skills	and self-expression skills
5	Decorating spring garden	Memories of hometown, spring of hometown, decorating spring garden	Improving cognitive ability, self-Integration, build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improving sense of happiness	Whole papers, flowers, Butterfly designs, glues, Scissors, colored Pencil
6	Setting a birthday table	Decorate a nice birthday table using a whole paper and express your favorite foods and fruits	Relieving depression, building a sense of happiness	sketchbooks, whole papers, colored papers, scissors, glues, colored pencils
7	Ganggangsullae	Decorate and talk about Ganggangsullae	Improving self-esteem, build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mproving cognitive ability	Whole papers, Ganggangsullae designs, colored pencils, glues, scissors
8	Patting	- Draw the shape of a hand, color it, cut it out, and attach it to a sketchbook with stickers - Talk about those who you want to pat comfort	emotional stability, relieving depression	emotional stability, relieving depression
9	Ring, ring, Hello	-Color and decorate an old telephone design -Talk about from whom you want to receive a phone call from the most and what you want to say.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orientation, and self-expression skills, relieving depression, improving the sense	sketchbooks, phone designs, glues, scissors, stickers

			of happiness	
10	Lucky bag	Decorate a lucky bag and talk about what lucks you want to bring to your family.	Exploring desires, improving pleasure and the sense of happiness	Sketchbooks, lucky bag designs, colored pencils, magazines, glues, scissors
11	Award to yourself	Express your effort to support children or husband and decorate a prize to be awarded to yourself	Enhancing self-esteem, relieving depression, and creating a sense of happiness	sketchbooks, award designs, colored pencils, ballpoint pens, glues
12	Wish tree	Decorate a tree and express what you wish for and give up in your desired location	Improving self-accepta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ole papers, leaf-free designs, leaf colored papers, colored pencils, colored papers, glues, scissors

##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충남 S군에 소재한 S주간보호센터 이용 65세 이상의 치매노인 30명을 대상으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확률 할당하여 사전, 사후, 추후검사를 측정하였다. 수립된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진행하였다.

첫째, 참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ronbach's  $\alpha$ 값을 도출하였다.

셋째, 사전점수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종속변수에 대한 미술치료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3×2 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종속변수의 사후점수와 추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 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본 연구에서 선정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 교차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umber (%)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otal
Gender	male	3(20)	2(13.3)	5(16.7)
	female	12(80)	13(86.7)	25(83.3)
age	60s	1(6.7)	2(13.3)	3(10)
	70s	2(13.3)	3(20)	5(16.7)
	80s	10(66.7)	7(46.7)	17(56.7)
	90s or over	2(13.3)	3(20)	5(16.7)
Academic background	no schooling	3(20)	1(6.7)	4(13.3)
	completed elementary school	6(40)	5(33.3)	11(36.7)
	completed middle school	5(33.3)	8(53.3)	13(43.3)
Marital status	completed high school	1(6.7)	1(6.7)	2(6.7)
	single	0(0)	1(6.7)	1(3.3)
	married/cohabiting	1(6.7)	4(26.7)	5(16.7)
Number of children	divorce	1(6.7)	0(0)	1(3.3)
	bereavement	13(86.7)	10(66.7)	23(76.7)
	none	1(6.7)	1(6.7)	2(6.7)
Economic levels	one	1(6.7)	1(6.7)	2(6.7)
	two	2(13.3)	1(6.7)	3(10)
	three	2(13.3)	4(26.7)	6(20)
	four or more	9(60)	8(53.3)	17(56.7)
Religion	general	3(20)	6(40)	9(30)
	mitigation	8(53.3)	7(46.7)	15(50)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benefits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benefits	4(26.7)	2(13.3)	6(20)
	Christianity	6(40)	8(53.3)	14(46.7)
	Catholics	0(0)	1(6.7)	1(3.3)
	Buddhism	4(26.7)	2(13.3)	6(20)
	Atheism	5(33.3)	4(26.7)	9(30)

Residing period	less than one year	6(40)	8(53.3)	14(46.7)
	one to less than two years	4(26.7)	2(13.3)	6(20)
	two to less than three years	4(26.7)	1(6.7)	5(16.7)
	three years or longer	1(6.7)	4(26.7)	5(16.7)
	total	15(100)	15(100)	30(100)

본 연구의 대상은 전체 30명 중에서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성별의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여자가 각각 12명(80%), 13명(86.7%)로 남자보다 많았고, 연령은 60대에서 90대 이상의 범위 중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80대가 각각 10명(66.7%), 7명(46.7%)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무학에서 고졸까지의 범위 중에서 실험군은 초졸이 6명(40%)으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중졸이 8명(53.5%)으로 가장 많았으며, 혼인상태는 실험군의 경우 사별이 13명(86.7%)으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 역시 사별이 10명(66.7%)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의 경우는 없음부터 4명 이상의 범위 중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4명 이상이 각각 9명(60%), 8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수준은 일반,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경감이 각각 8명(53.3%), 7명(46.7%)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기독교가 각각 6명(40%), 8명(5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소기간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1년 미만인 각각 6명(40%), 8명(5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2 사전점수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검사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우울과 대인관계 및 주관적 행복감 변수의 사전점수에 대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간 동질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T-test 결과는 다음의 <Table 3>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3> Intergroup homogeneity investigation for pre-test scores

group	N	average	t	p
depression	experimental group	15	2.467	-1.257 .219
	control group	15	2.610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perimental group	15	2.936	-.443 .661
	control group	15	3.019	
subjective sense of happiness	experimental group	15	2.583	.105 .917
	control group	15	2.550	

\*p<.05 \*\*p<.01 \*\*\*p<.001

우울과 대인관계, 주관적 행복감의 사전점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의  $t=-1.257(p>.05)$ , 대인관계의  $t=-.443(p>.05)$ , 주관적 행복감의  $t=.105(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울과 대인관계, 주관적 행복감의 사전점수에 대해 실험군과 대조군은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 3.3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 대인관계,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치매노인의 우울, 대인관계,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3×2 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3.3.1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3×2 혼합변량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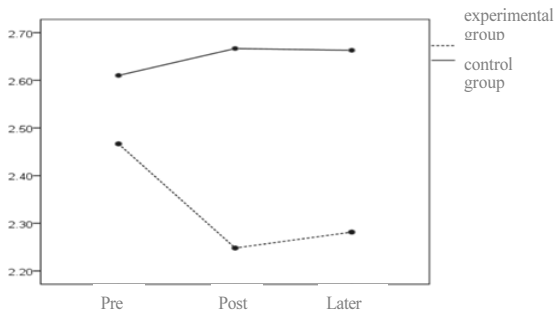
<Table 4>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ctive Art Treatment based on Reminiscence Therapy on the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with Dementia

group	average	Standard deviation	N	test results
Pre	experimental group	2.467	0.327	Point-in-time=.112(2) sum of squares (df) within-subjects effect F(p)
	control group	2.610	0.298	
	total	2.538	0.316	
Post	experimental group	2.248	0.362	Point-in-time* group=7.956**
	control	2.667	0.283	

		group					
total		2.457	0.384	30	intercept=557.723(1)	sum of squares	between-subjects effect
experimental group		2.281	0.324	15	group=2.226(1)	(df)	
Later	control group	2.663	0.309	15	intercept=2132.089***	F(p)	
total		2.472	0.366	30	group=8.509**		

\*p<.05 \*\*p<.01 \*\*\*p<.001

우울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에 대해 개체 내 효과와 개체 간 효과를 파악한 결과, 개체 내 효과에서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F=7.956(p<.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집단미술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난 우울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의 변화에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개체 간 효과에서는 집단의  $F=8.509(p<.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는 바, 이러한 변화의 효과에 집단 간 차이가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점의 변화에 따른 점수 변화를 집단별로 구분해서 나타낸 것이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Figure 1] Changes according to the time of depression scores by group

우울의 사전점수에 대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사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하였고, 대조군의 경우는 사후와 추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높아졌으나, 실험군의 경우는 사후에 우울점수가 큰 폭으로 감소된 후, 점수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는 치매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것이다.

### 3.3.2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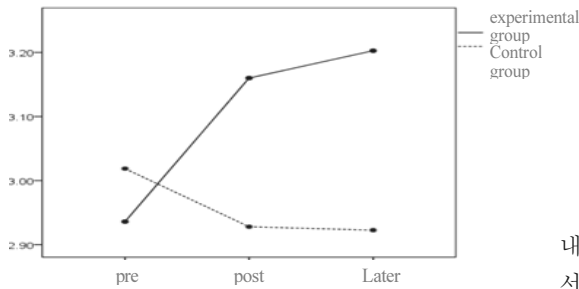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3×2 혼합변량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5> Effects of Collective Art Treatment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group	average	Standard deviation	N	test results	
Pre	experim ental group	2.936	0.517	15	Point-in-time=.121(2)	sum of squares	within-subjects effect
	control group	3.019	0.505	15	Point-in-time* group=582(2)	(df)	
	total	2.977	0.504	30	Point-in-time=3.119	F(p)	
Post	experim ental group	3.160	0.525	15	Point-in-time* group=15.039***		between-subjects effect
	control group	2.928	0.491	15			
	total	3.044	0.513	30	intercept=825.191(1)	sum of squares	
Later	experim ental group	3.203	0.533	15	group=.461(1)	(df)	between-subjects effect
	control group	2.923	0.482	15	intercept=1117.001***	F(p)	
	total	3.063	0.519	30	group=.624		

\*p<.05 \*\*p<.01 \*\*\*p<.001

대인관계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에 대해 개체 내 효과와 개체 간 효과를 파악한 결과, 개체 내 효과에서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F=15.039(p<.0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집단미술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난 대인관계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의 변화에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체 간 효과에서는 집단의  $F=.624(p>.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바, 이러한 변화의 효과에 집단 간 차이가 기여했기 보다는 시점과의 상호작용이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점의 변화에 따른 점수 변화를 집단별로 구분해서 나타낸 것이 다음의 [Figure 2]과 같다.



[Figure 2] Changes according to the time of interpersonal scores by group by group

대인관계의 사전점수에 대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사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하였고, 대조군의 경우는 사후와 추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낮아졌으나, 실험군의 경우는 사후에 대인관계 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추후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는 치매노인의 대인관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것이다.

### 3.3.3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3×2 혼합 변량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6>와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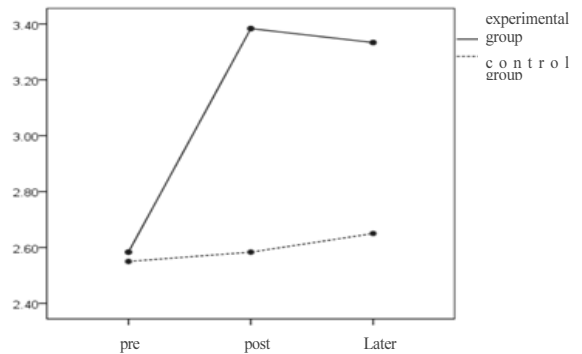
<Table 6> Effects of Collective Art Treatment based on Reminiscent Therapy on the Subjective Happiness among the Elderly with Dementia

group	average	Standard deviation	N	test results
experimental group	2.583	0.748	15	Point-in-time=3.543 (2)
Pre control group	2.550	0.969	15	Point-in-time*group =2.560(2)
합계	2.567	0.851	30	Point-in-time=3.11.6 41**
experimental group	3.383	0.687	15	Point-in-time*group =6.243**
Post control group	2.583	0.659	15	
합계	2.983	0.777	30	intercept=729.601(1) sum of between- subjects effect
Later experi	3.333	0.754	15	group=5.751(1) sum of squares

mental group				(df)	
control group	2.650	0.990	15	intercept=465.585***	F(p)
합계	2.992	0.932	30	group=3.670	

\*p<.05 \*\*p<.01 \*\*\*p<.001

주관적 행복감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에 대해 개체 내 효과와 개체 간 효과를 파악한 결과, 개체 내 효과에서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F=6.243(p<.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집단미술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관적 행복감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의 변화에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체 간 효과에서는 집단의  $F=3.670(p>.01)$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바, 이러한 변화의 효과에 집단 간 차이가 기여했다기 보다는 시점과의 상호작용이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점의 변화에 따른 점수 변화를 집단별로 구분해서 나타낸 것이 다음의 [Figure 3]과 같다.



[Figure 3] Changes according to the time of subjective sense of happiness scores by group

주관적 행복감의 사전점수에 대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사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하였고, 대조군의 경우는 사후와 추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좁은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실험군의 경우는 사후에 주관적 행복감 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추후에 약간의 반전하락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



단미술치료는 치매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것이다.

### 3.4 종속변수의 사후점수와 추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인 우울과 대인관계, 주관적 행복감의 사후점수와 추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4.1 사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종속변수의 사후점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7>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7> Inter-group differences for post-scores

group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p
depression	experimental group	15	2.248	-3.528	.001**
	control group	15	2.667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perimental group	15	3.160	1.250	.222
	control group	15	2.928		
subjective sense of happiness	experimental group	15	3.383	3.254	.003**
	control group	15	2.583		

\*p<.05 \*\*p<.01 \*\*\*p<.001

먼저 우울의 사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t=-3.528(p<.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실험군의 우울 사후점수는 2.248, 대조군의 우울 사후점수는 2.667로서 대조군의 우울이 실험군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의 사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t=1.250(p>.05)$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의 사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t=3.254(p<.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실험군의 주관적 행복감 사후점

수는 3.383, 대조군의 주관적 행복감 사후점수는 2.583으로서 실험군의 주관적 행복감이 대조군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후점수는 우울과 주관적 행복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우울은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낮고, 주관적 행복감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 3.4.2 추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종속변수의 추후점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8>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8> Inter-group differences for pre-score

group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p
depression	experimental group	15	2.281	-3.303	.003**
	control group	15	2.663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perimental group	15	3.203	1.510	.142
	control group	15	2.923		
subjective sense of happiness	experimental group	15	3.333	2.127	.042*
	control group	15	2.650		

\*p<.05 \*\*p<.01 \*\*\*p<.001

먼저 우울의 추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t=-3.303(p<.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실험군의 우울 추후점수는 2.281, 대조군의 우울 추후점수는 2.663으로서 대조군의 우울이 실험군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의 추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t=1.510(p>.05)$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의 추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t=2.127(p<.05)$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실험군의 주관적 행복감 추후점수는 3.333, 대조군의 주관적 행복감 추후점수는 2.650으로서 실험군의 주관적 행복감이 대조군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점수 역시 우울과 주관적 행복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우울은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낮고, 주관적 행복감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 4. 결론 및 제언

회상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 대인관계,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통계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치매노인에 우울에 대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집단미술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난 우울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의 변화에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 역할이 있었다. 따라서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치매노인의 우울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감소된 우울이 지속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우울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김영숙, 도복늬, 2005; 최희선, 2005; 김현민, 전순영, 2012, 김선명, 2015)와 일치한다[9,8,25,26].

둘째, 치매노인에 대인관계에 대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집단미술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난 대인관계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의 변화에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 역할이 있었다. 따라서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치매노인의 대인관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개선된 대인관계가 지속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치매노인에게 실시한 집단미술치료가 대인관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진성희, 2009; 류은석, 전영숙, 2016; 엄인하, 2019)와 일맥상통한다[12,27,11].

셋째, 치매노인에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집단미술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관적 행복감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의 변화에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 역할이 있었다. 따라서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치매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개선된 주관적 행복감이 지속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영숙, 도복늬, 2005; 하혜미, 최은영, 전종국, 2012; 이기문, 2014; 오영이, 이숙민, 2016)]와 일맥상통한다[9,28,29,16].

넷째, 종속변수의 사후점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사후점수는 우울과 주관적 행복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우울은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낮고, 주관적 행복감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종속변수의 추후점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추후점수 역시 우울과 주관적 행복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우울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낮고, 주관적 행복감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회상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는 작업 과정에서 자율성과 흥미를 유발해 우울의 감소에 효과적이고, 집단미술치료를 통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자신의 감정 또는 욕구를 미술매체를 통하여 표현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정의 순화가 일어나고 고립감에서 벗어나 긍정적 관계회복에 도움을 주어 대인관계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회상요법을 집단미술치료와 활용함으로써 치매노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재구조화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해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해서 수용과 격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관적 행복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회상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 향상 시키며, 주관적 행복감 향상 시키는데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치매노인의 유형별 특성에 맞춘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검증을 거듭해서 시대의 흐름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있어서 치매노인들의 흥미와 기능을 고려해서 다양한 주제와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세번째, 치매노인의 경우 미술치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을 표현하고 작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미술을 잘 하고 못하고의 결과와 상관없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과정만으로 많은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술치료가 보건소, 종합병원, 사회교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제한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좀 더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질병이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예술 양식과 접목된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겠다.

셋째, 집단미술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방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우울, 대인관계, 주관적 행복감 변인 외에도 의사소통 등과 같은 다른 변인들을 추가해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 References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0 statistics on the elderly, 2020.
- [2] Central Dementia Center, Korean Dementia observatory 2020, 2020.
- [3] Byung-hun Oh, "Senile Dementia-Cause and Differential Diagnosis",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 37, pp.785-790, 1994.
- [4] Chi-Young Kim, "The cognitive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the aged with dementia in the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for aged",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5] Yeo-ju Jeong, "Art Therapy for the Elderly", Seoul: Hakjisa, 2006.
- [6] Youn-sook Eom, "The influence of group art therapy on depression and self integration in old-aged", A paper in sculpture art, Vol. 7, No. 2, pp.75-89, 2007.
- [7] Wae-Sun Choi,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Cognitive Function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 12, No. 4, pp.951-985, 2005.
- [8] Young-Sook Kim, Bok-Num Doh, "Effects of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with Reminiscence on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Demented Elderly",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 12, No. 2, pp.483-500, 2005.
- [9] Kyung-Young Lee, "Effects of the Group Art Therapy on the Communications and the Social Behaviors of the Demented Elderly",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 [10] In-Ha Um,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Elderly People with Mild Dementia",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9.
- [11] Sung-Heui Jin, "A Case study of group art therapy for the improvements of the life quality with seniors who has been mild dementia in daycare center: focusing in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Graduate School of East-West Complementary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12] Su-Young Ahh, "The Effects of Recall-Based Group Art Therapy Using Picture Books on the Cognitive Function and Self-expression of Mild Dementia Elderly", Graduate school of Arts and Design, Konk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21.
- [13] Joo-Young Lee, Na Young Lim, "The Effect of Reminiscence-Oriented Group Art Therapy using Seasonal Customs on Memory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 23, No. 3, pp.895-916, 2016.
- [14] Sun-Nam Cho,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Applying Reminiscence Therapy on Self-Express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Medicine, Daeje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 [15] Young-Yi, Oh, Sug-Min Lee, "The Effect of the Group Art Therapy using Recall on the Quality of Life and Emotion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in Day Care Center", Industry Promotion Research. Vol. 1, No. 2, pp.79-86, 2016.
- [16] Eun-Jeong Lee, "Content Analysis of Reminiscence of the Dementia Elderly", Journal of

-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 No. 2, pp.224-235. 1999.
- [17] P. S. Fry, "Structured and unstructured reminiscence training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Clinical Gerontologist*, Vol. 1, No. 3, pp.15-37, 1983.
- [18] Hye-Suk. Gong, "The Effects of Group Art Treatment Reminiscence Therapy on Dissolving the Helpless and Social Solitary of the Older Patients in the Long-term Nursing Home", *The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Vol. 12, No. 1, pp.1-23. 2012.
- [19] S. M. Gallagher, "Celebration of women's Live: Geriatric Art Therapy Life Review", *Masters Abstracts International*, 1993.
- [20] Yun-Ok Seo,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f recollection medical treatment on the mental state and Art-self-expression for the old dementia patient", Graduate school of Woos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21] W. W. K. Zung, "Depression status inventory and self-rating depression scale note 1974, in Ward, M.J. & Lindenman, C.A., Instruments for measuring nursing practice and other health care variables,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Vol. 1, pp.200-204, 1974.
- [22] Seon-mo Mu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 19, No. 2, pp.195-203. 1980.
- [23] Jee-Suk Lim, "The Relationships of a self-enhancement Bias,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Old-adult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24] Hwee-Sook Jang, "The Relationships of Subjective Health, Personality Traits, Happiness and Death Attitude of the Korean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2, No. 2, pp.23-40, 2009.
- [25] Hyun-Min Kim, Soon-Young Chun,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through Reminiscence on the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of the Demented Old People",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 19, No. 5, pp.1289-1312, 2012.
- [26] Sun-Myung Kim, "Group Art Therapy Using Reminiscence Techniques on Cognitive Functions, Depression and Self-Expression of Elderly with Dementia",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 22, No. 2, pp.603-634. 2015.
- [27] Eun-Seok Ryu, Young-Sook Jeon, "A Study on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Combined with Therapeutic Recreation on the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Elderly Dementia Patient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 23, No. 5, pp.1371-1393, 2016.
- [28] Hye-Mi Ha, Eun-Yeong Choi, and Jong -Kook Jeon, "Effects of Group Art Treatment Reflecting Reminiscence Therapy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Living in Health Care Center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 19, No. 2, pp. 405-421, 2012.
- [29] Ki-Moon Lee, "Effects of the Reminiscence Therapy with Group Art Treatment on the sentiment and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s who Live in Care Facilities", Graduate school of Woos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김 경 화 (Gyoung- Hwa Kim)**



- 2019년 9월 ~ 2021년 10월 현재 : 단국대학교 강사
- 2018년 6월 ~ 2019년 10월 : 두드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
- 2015년 9월 ~ 2018년 8월 : 단국대학교 박사 졸업
- 2009년 9월 ~ 2012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석사 졸업
- 관심분야 : 노인, 장애인, 미술치료
- E-Mail : kghwa40@naver.com